일본 면방 각사의 신상품 창조 솜씨들(11)

도호 텍스타일의 링, OE 방적 솜씨-복합사ㆍ멀티 카운트사 등 개발

도호 텍스타일은 복합사를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소재부터의 테크닉으로서 인도 면, 재생 셀룰로스 섬유계의 리오셀(lyocell)이나 모달(modal), 텐셀(tencel), 평편 레이온 “바이로프트”, 아크릴에서도 “마이크로 아크릴”을 사용하는 등 개발하고 있는 원사군도 다양하다.

마이크로 아크릴을 사용한 “솔리스트” 시리즈에서는 “바이로프트”를 짜맞춘 “솔리스트 서모”가 인기 상품이 되고 있는데, 새롭게 바이로프트를 면으로 바꾼 “바아디”를 개발하였다. 마이크로 아크릴과 “퓨어 클라스”의 면화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촉감이 특징이다. 가벼우면서도 따스한 맛도 가미하였다. 현재 새로운 타입의 레이온을 사용한 소재도 개발 중이며, 솔리스트 시리즈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다.

도호 텍스타일의 방적 기술을 소개하는 데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멀티 카운트사 “칵테일(Cocktail)”이다. 어떤 베이스 번수에 얼룩을 만든 슬럽사와는 좀 다르다. 최신예 컴퓨터 장치와 방적 기술을 사용하여 베이스 번수 자체를 자유로 변화시키는 것이 “칵테일”과 보통의 슬럽사와의 다른 점이다. 칵테일은 굵거나 가는 정도나 여러 굵기의 길이 등을 자유로 정하여 다양한 표정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

이 실을 만드는 데는 물리적인 면에서 매우 어려운 기술을 써야 한다. 굵었다가 가늘었다를 되풀이하기 위하여는 앞으로 여러 공정을 겪을 때 특히 가는 부분이 끊어지지 않을 만한 강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아무리 원사가 잘

만들어져도, 염색이나 각종 마무리 가공 단계에서 실을 손상시키는 공정에 견딜 수 없으면 상품으로서 고객에게 팔 수가 없다.

이 “칵테일”이 진보한 소재도 개발하고 있다. 보통은 얼룩 실이 베이스 실에 요철의 철(凸) 부분에 슬럽을 만들고 있는데, 요(凹) 부분의 베이스 실을 가늘게 만든 것이 “칵테일 리버스(Cocktail reverse)”이다. 종전의 기계에 특수 장치를 붙여 철(凸) 부분에 다른 섬유를 붙이는 타입의 얼룩 실 “칵테일 패치워크(Cocktail pathwork)”는 혼방과 혼방, 필라멘트와 스테이플 등 어떤 원료, 소재와도 짜맞출 수 있는 차별화의 발상은 무한대라고 말 할 수 있는 소재이다. ♣